

TEXTILE & FASHION TREND ISSUE



ISKO'S CTRL+Z FABRICS

TEXTILE 데님 원단 및 워싱 공장에 대한 파트너십 확대

블루사인, 데님 이니셔티브 확장⁽¹⁾

글로벌 친환경 인증 시스템 '블루사인(Blue-sign)'이 데님 사업을 확장한다. 스위스 소재 블루사인테크놀로지사의 '블루사인'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화학물질을 엄격하게 선별하고, 폐수 및 배기 가스 등의 관리수준을 심사하는 글로벌 친환경 인증 시스템이다. 이를 확장해 이번에 '블루사인 데님'까지 영역을 넓혔고 특히 유럽,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파트너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미 시장에서는 '메이드웰(Madewell)', '리포메이션(Reformation)', '에버레인(Everlane)' 등의 친환경 패션 브랜드가 블루사인 데님 인증을 획득했고, 유럽에서는 '이스코(Isko)'가 대표적이다. 이스코는 지난해 재생 소재 브랜드인 'Ctrl+Z 패브릭' 혁신으로 블루사인 승인을 받았다. 'Ctrl+Z 패브릭'은 재활용 면과 재활용 폴리에스터, 재생 셀룰로오스 섬유의 순수 혼합으로 만들어졌다. 아시아 마켓에서는 '사이텍스(Sait-

ex)', '어드밴스드 데님(Advanced Denim)', '프로스퍼리티 텍스타일(Prosperity Textile)'과 파트너십을 맺었다.

블루사인은 데님 원단뿐만 아니라 워싱, 데님 브랜드까지 네트워크를 확장해 데님 마켓에서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여러 대륙에 걸쳐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토크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다.



10주년을 맞은 패션레볼루션의 '고쳐입는 날' 행사

TEXTILE

패션레볼루션, 10주년 맞은 FRW 2024⁽²⁾

20일, 전세계적으로 고쳐입는 날 행사 열려

런던에 본부를 둔 패션레볼루션이 지난 4월 15일부터 24일까지 '2024 패션레볼루션 워크(FRW 2024)'를 맞이했다. 패션레볼루션은 지난 2014년 방글라데시 라나플라자 공장 붕괴 사고에 대응해 의류 제조업체의 정의와 존엄성을 요구하는 투명성을 위한 세계적인 운동으로 시작했다.

지난 2017년부터는 글로벌 패션 투명성 지수를 출시해 인권 및 환경 관행에 대해 패션업계 경

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패션 투명성 지수는 주요 패션 브랜드의 86%가 지속적으로 공개 수준을 평균 15%P에서 최대 54%P까지 높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100개 브랜드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250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있다.

패션레볼루션은 2024 패션레볼루션 워크를 맞아 지난 10년간 글로벌 패션 산업이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 되돌아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분야를 공유했다. 커뮤니티 리더들, 창의적인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회 및 환경 정의를 위한 '패션 역할'을 모색했다.

또 4월 20일에는 전세계적으로 의류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고쳐입는 날(MEND IN PUBLIC DAY)' 행사를 진행했다. 국내 패션레볼루션코리아팀도 마포여성동행센터에서 수선의 아름다운과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FASHION

F&F·효성티앤씨·제주개발공사, 지구 위해 손잡아

'디스커버리' 제주 리사이클 에디션 출시

F&F, 효성티앤씨, 제주개발공사가 지구를 위해 힘을 합쳤다.

F&F가 전개하는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은 지구 환경 보호를 위해 리사이클 원단을 활용한 착한 티셔츠를 출시했다. 페플라스틱 수거는 제주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리사이클 원단 제작은 효성티앤씨가 맡았다.

F&F는 전세계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

면서 해양 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는 점에 주목, 제주도에서 버려진 페플라스틱을 수거해 티셔츠 제품으로 리사이클했다.

이번에 의류로 제작된 페플라스틱은 총 2톤 분량이다.

또 제주도를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그래픽 아티스트 그룹 '메인크루'와 협업해 제주도의 랜드마크와 다양한 액티비티, 플로킹 등 자원순환 활동 모습을 아트웍으로 담았

다.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 공식 온라인물 및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한다.

F&F는 2022년부터 의류재고를 소각하지 않고 리사이클 가구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고, 이를 통해 탄생한 가구는 아동복지시설에 기부되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생활 및 학업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사넬' 스카프를 업사이클한 '제이 로간 홈'

FASHION

'사넬' 스카프를 업사이클한 티셔츠는 불법일까?⁽³⁾

지적재산권과 업사이클링의 경계

미국 스타일리스트 출신인 디자이너 로간 홈(Logan Horne)은 지난 2020년 헤리티지 브랜드의 빈티지 스카프를 업사이클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제이 로간 홈(J. Logan Horne)'을 런칭했다.

이 브랜드는 헤리티지 럭셔리 스카프 등을 업사이클해 남성용 셔츠, 드로즈, 후웨어 등으로 새롭게 탄생시킨다. 빈티지 애호가인 그는 주로 '샤넬', '셀린', '에르메스' 등의 빈티지 스카프를 메인 모티브로 활용해 화려한 남성 셔츠를 제작한다.

가격대는 셔츠가 2,850달러(한화 약 390만원)로 결코 저렴한 가격이 아니다. 업사이클 티셔츠 케이스도 250달러(한화 약 340만원)으로 최고가 전락을 펼치고 있다.

업사이클링은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제품의 수명을 늘리는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해체하고 재조합해 새로운 디자인을 창조하는 솔루션으로 인기가 있다. 다만 '제이 로간 홈'의 경우처럼 타인의 상표가 새겨진 업사이클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기 외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이 로간 홈' 셔츠가 2,850달러에 판매될 수 있는 것 역시 헤리티지 브랜드의 로열티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나이키' 리유저를 소핑백을 업사이클해 8만원에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 맨해튼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나이키'가 만든 A.I.R 스니커즈

3D DIGITAL

AI가 디자인하고, '나이키'가 만든 A.I.R 스니커즈⁽⁴⁾

파리에서 올림픽 테마의 '나이키 온 에어' 쇼케이스

'나이키'가 지난 4월 11일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 테마의 '나이키 온 에어' 쇼케이스에서 '나이키 A.I.R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나이키 A.I.R 프로젝트의 'A.I.R.'은 Athlete Imagined Revolution of the 약자로 생성 AI, 신속한 프로토타이핑 및 3D 프린터를 사용해 제작 및 디자인한 13개 컨셉의 스니커즈로 구성됐다. 이번 디자인은 나이키 AIR 디자인팀이 미래지향적인 3D 프린팅 컨셉 스니커즈를 시각화하기 위해 생성 AI 기술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빅터 웰반아마를 비롯한 13명의 운동선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생성 AI 프롬프트에 적용, 수백여 개 무드 보드 시리즈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2D 디자인을 완성한 후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을 몇 시간, 최대 며칠 만에 완성했다.

생성 AI로 디자인한 '나이키 A.I.R.'은 미래지향적인 실루엣의 컬렉션으로 퍼플과 오렌지 컬러 조합에 솔, 어퍼에 에어가 들어간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이 제품군은 실제 발매되는 않을

계획이지만, '나이키'의 Web 3.0 시대를 위한 청사진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나이키'는 새로 발매한 '나이키' 에어맥스 Dn의 캠페인 캐치프레이즈를 'feel the unreal'로 정하고 디지털 콘텐츠와 결합한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으며, 포트나이트에 '나이키 에어포리아'를 구축하고 디지털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알타바와 협업한 '비비언 탐' CGI 비디오

3D DIGITAL

알타바, '비비언 탐' 협업 등 패션 AI 플랫폼 고도화⁽⁵⁾

AI 도구 활용한 3D 패션 제작 플랫폼으로 확장

인공지능 패션 테크 기업 알타바가 패션 AI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알타바는 최근 디자이너의 브랜드가 가상 현실 속에서 패션을 쉽게 디자인하고 공유할 수 있는 '알타바 AI'의 오픈 베타 버전을 공개했다. 이는 크리에이티브들이 '알타바 AI' 템플릿과 AI 디자인 도구를 활용해 자신만의 3D 패션을 쉽게 제작

할 수 있으며 가상 세계, 게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수익화할 수 있다.

이어 웹3 블록체임 게임 '애니콜 월드' 개발사인 플레йти토즈와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한다. 플레йти토즈의 '토크 유니버스'에 알타바의 '알타바 AI'를 활용한 3D 패션 에셋을 공급하고, 커뮤니티 협업을 확대한다.

또한 해외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글로벌 마켓에서의 인지도도 높이고 있다. 중국 패션 디자인러이자 NYFW 멤버인 비비언 탐(Vivienne Tam)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비비언 탐 컬렉션의 배경이 되는 몰입형 CGI 비디오를 개발했다. 비비언 탐은 알타바와 협업으로 AI 디자인의 상상력을 확장해 새로운 결과물을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rivet, BLUESIGN EXPANDS DENIM INITIATIVE WITH EUROPEAN AND ASIAN PARTNERS, 24년 4월 16일

(2) 이노베이션인텍스타일, Fashion Revolution reflects on an industry in transition 24년 4월 10일

(3) BOF, Chanel's Latest Legal Battleground: Upcycling, 24년 4월 19일

(4) 하입바스트, AI로 만든 '나이키 A.I.R 프로젝트' 스니커 캠페인, 24년 4월 12일

(5) 뉴시스, AI로 디자인한 패션, 메타버서스 일는다, 24년 4월 2일



FABRIC DIVE
Virtual Fabric Business Platform

문의 : 다이텍연구원 소재빅데이터연구센터
Tel : 053-350-3734, 3743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